

게임 속 몬스터·의상 등 인문학적 요소 가미된 ‘한국 문화’

르포

엔씨소프트 사내도서관

국내외 서적 포함 4만여권 소장
게임 배경에 참고할 식물·자연
전장장비·의상 등 도서도 구비
“K-콘텐츠 속에서 상호작용”

“게임은 예술입니다.”

통념적으로 단순 오락에 불과하다고 여겨지는 게임에 의외의 모습이 숨겨져 있었다. 바로 인문학이었다.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엔씨소프트 사내 도서관에 들어서니 뽁뽁하게 공간을 가득 채운 책들이 한 눈에 들어왔다. 도서관 한 쪽 공간에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보였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게임을 제작할 때 캐릭터 하나, 배경 요소 하나도 책을 참고하고 고민한다며 게임을 “그 자체로 예술”이라 표현했다.

8일 방문한 엔씨소프트 사내도서관은 방대한 양의 도서를 자랑하고 있었다. 현재 엔씨소프트 사내도서관은 국내외 서적을 모두 포함해 총 4만여권이 넘는 도서를 소장하고 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도서관의 시설을 설명하며 “엔씨소프트 사내 도서관은 직원들이 필요한 책, 읽고 싶은 책을 신청하면 다 구비해준다”며 “동시에 사내 도서관은 책을 기부하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① 엔씨소프트 사내 도서관 내부. ② 책 분류 표지. ③ 리니지 원작 만화.

지금까지 게임은 단순한 오락거리, 유희거리로만 인식돼 왔다. 일반 대중의 이 같은 인식적 측면을 객관적으로 증명이라도 하듯,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9년 게임 이용장애를 국제 질병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최근, 한국이 WHO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지난 5일, 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게임이용장애 국제세미나’에서는 게임 이용이 장애로 판단돼 질병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한 전세계 전문가들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게임업체들 내부를 들여다보

면, 게임은 단순 유희의 요소에 불과한 오락거리가 아니었다. 게임은 인문학적 요소가 가미된 하나의 ‘한국 문화’였다.

엔씨소프트의 경우도 사옥에 방문과 동시에 안 쪽으로 들어가니 도서관 내부에 특별한 책 분류 표지가 가장 눈에 띄었다. 일반적으로 도서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역사, 인문, 과학의 분류가 아닌 몬스터, 의상, 전장장비라는 제목의 책 분류 표지가 책 사이사이에 자리하고 있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몬스터, 의상, 전장 장비 외에도 모든 게임 배경을 만들 때 여기 있는 책들을 참고해서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말했다.



/안재선 수습기자

심지어 더 안 쪽으로 들어가니 식물, 자연이라고 분류된 책 보관 장소도 존재했다. 게임 배경을 이루는 사소한 식물 하나까지도 책을 통한 인문학적 고뇌와 기획자들의 고민이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게임에도 다양한 지식을 포함한 인문학적 요소가 스며들어 있었던 것이다.

단순 게임 캐릭터와 배경 묘사뿐만 아니라 게임 내부의 이야기에요도 인문학적 요소가 가미돼 있었다. 도서관을 돌고 출구로 나서기 직전, 엔씨소프트의 대표작 게임 리니지의 원작 만화책이 눈에 띄었다. 신지연 작가 특별전이라는 이름으로 배치된 리니지 1권, 2권, 3

권의 책이 일렬로 배치돼 있는 것.

회사 관계자는 “리니지 게임의 원작은 만화책에서 시작됐다”며 “문화 콘텐츠의 70%가 게임이다. 결국 게임도 그 자체만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K-콘텐츠속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며 함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재선 수습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SKT, 글로벌 통신사들과 AI 혁신 가속화

싱텔과 네트워크 기술 협력 MOU 6G 적용사례 개발 등 공동개발 확대

SK텔레콤이 글로벌 통신사들과 기술 협력 확대를 통해 통신업에서의 인공지능(AI) 혁신에 속도를 낸다.

SK텔레콤은 싱가포르 1위 통신사업자 싱텔과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다방면의 네트워크 기술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이동통신망의 서비스·기술 혁신을 주도한다는 포부다.

SK텔레콤과 싱텔은 주요 글로벌 통신사들의 AI 연합인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Global Telco AI Alliance)’의 창립 회원사다. 이번 MOU는 통신과 AI를 결합해 자체 AI 경쟁력 강화는 물론 글로벌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체결됐다.

양사는 이동통신 네트워크 엔지니어링·구축·운용·솔루션 등 다양한 상용망 분야에서 기술 논의와 인력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서비스 차별화를 위한 ▲에지(Edge) AI 인프라 적

용과 코어망 운용기술 연구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 5G 유무선 이동통신망 진화 기술 전략 ▲6G 적용사례 개발 ▲ESG 관점의 효율적 네트워크 구축 등 기술 교류를 시작으로 공동 개발, 연구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에지 AI 인프라는 에지 컴퓨팅을 통해 클라우드로 집중되는 연산부담을 줄이고 AI 솔루션을 결합해 AI추론을 수행한다. SK텔레콤은 싱텔과 관련 기술 연구 공동 추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AI 서비스 제공 방안까지 구체화한다는 목표다.

강종렬 SK텔레콤 ICT 인프라 담당

(CSPO)은 “SK텔레콤과 싱텔의 협력은 글로벌 통신 산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양사의 강점을 결합해 효율적인 고성능 네트워크 구축, 안정적 서비스 제공, 네트워크 기반 신규 서비스 발굴 뿐 아니라 AI 유무선 인프라 등 차세대 통신 기술 개발에서 성과를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테이 요우 리안 싱텔 네트워크 담당 매니징 디렉터는 “5G 기술의 선도 기업으로서 네트워크 슬라이싱, AI 인프라 도입 등을 비롯해 다양한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SK텔레콤과 고객 경험 강화 뿐 아니라 업계 혁신과 6G로 진화를 준비할 수 있는 기술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신일 BLDC 폴딩팬 이미지.

/신일전자

신일전자

폴딩팬 누적판매 72억

종합가전기업 신일전자는 자사무선 BLDC 폴딩팬이 출시 3년 만에 누적 판매량 약 72억 원 규모를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 2022년 출시된 무선 BLDC 폴딩팬은 접이식 형태로 휴대가 간편해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제품이다.

신일은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24년형 폴딩팬’을 출시했다.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배터리 효율, 모터 성능, 편의성 등을 개선했다.

24년형 무선 BLDC 폴딩팬은 자유로운 높낮이 조절이 가능해 ▲스탠드 ▲테이블 ▲폴딩 3가지 타입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접이식 디자인으로 휴대가 용이해 좁은 공간이나 이동 시에는 전용 가방에 넣어 보관할 수 있다.

최저단계 사용 기준 최대 약 60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한 4400mAh의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했다. 고성능 BLDC 모터를 탑재하여 저전력으로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바람을 제공한다. /이혜민 수습기자 hyem@

아우디 “Q4 e·Q8 e-트론 시승하세요”

롯데몰 김포공항서 ‘씨머 라운지’

아우디 공식딜러 바이에른오토가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롯데몰 김포공항점 MF층 로비에서 바이에른오토 아우디 씨머 라운지 전시·시승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바이에른오토와 롯데몰 김포공항점의 마케팅 파트너십 협약 체결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행사로, 최근 3개월 독일 프리미엄 수입 전기차 브랜드 중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아우디

Q4 e-트론’ 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 출시된 대형 프리미엄 순수전기 SUV ‘아우디 Q8 e-트론’까지 모든 라인업의 아우디 차량을 직접 시승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프리미엄 수입차 브랜드의 전시행사가 부족했던 서울 강서구에서 개최되어, 롯데몰 김포공항점에서 가까운 서울 강서 지역을 포함하여 김포, 부천, 인천, 일산 등 인근에 거주하는 많은 고객들이 가족·연인과 함께 참여할 것으로 회사는 기대했다.

/양성운 기자

롯데렌탈, MSCI ESG평가서 ‘AAA’ 획득

동일업종 세계 최초 최고 등급

롯데렌탈은 투자정보 제공기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발표한 2024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최상위 ‘AAA’ 등급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롯데렌탈은 전 세계 지상여객운송업종에서 AAA 등급을 받은 기업은 자사가 최초이자 유일하다고 소개했다.

MSCI ESG 평가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글로벌 평가로 매년 전 세계 8500여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경영 현황을 평가해 7개 등급(AA-A-AA-A-BBB-BB-B-CCC)으로 분류한다.

롯데렌탈은 2022년과 작년 2년 연속 동종업계 최고 수준인 AA 등급을 획득했고, 올해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A 등급을 받았다.

롯데렌탈과 함께 AAA 등급을 받은 국내 상장사는 SK, KB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등 6개 기업 정도다.

/양성운 기자